

작품해설

현대소설

□ 핵심정리

- ◆ 갈래 : 단편소설, 분단소설
- ◆ 성격 : 상징적, 회상적
- ◆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 ◆ 배경 : 시간 - 6 25가 끝난 후 30여년이 흐른 1980년대 / 공간 - 서울→경상도의 어느 지방
- ◆ 제재 : 전쟁이 집안에 남긴 육체적·정신적 상처
- ◆ 주제 : 여전히 남아 있는 분단의 비극과 그 상처.

- ◆ 발단 - 사촌 중수로부터 '삼촌'의 부고를 전보로 전해 받은 나
- ◆ 전개 - 아내의 동행을 만류하고 기어코 혼자서 기차를 타고 고향 마을로 내려감
- ◆ 위기 - 광복후의 암울했던 가족사를 회상함
- ◆ 절정 - 화장터에서 삼촌의 몸에서 나온 '파편' 하나를 발견함
- ◆ 결말 - '파편'을 보고 심한 부끄러움을 느낌

- ◆ 나 - 주인공. 과거의 아픈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는 인물
- ◆ 삼촌 - 천덕꾸러기로 자랐으나 인정이 많은 인물. 전쟁 참가 후, 상이군인이 되었지만, 가슴 속에 ??파편??과도 같은 한(恨)을 가지고 산 인물
- ◆ 아내 - ??나??와는 달리 가족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물. 월남했음.
- ◆ 어머니 - 남편의 좌익 활동으로 모진 세파를 겪는 비극적인 인물

- 줄거리

어느 겨울 저녁, 나에게 전보지가 날아들었다. 숙부가 사망했다는 전보였다. 나는 어리둥절하고 혼란스러웠다. 숙부의 장례에 참석학 위해 회사에 이틀 간의 휴가를 신청한 뒤, 같이 가겠다는 아내를 떼어 놓고 눈이 날리는 거리를 지나 밤차로 K시로 향한다. 버스 안에서 양주를 마시며 나는 회상에 잠긴다.

친일파였던 할아버지,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였던 아버지, 그리고 서자(庶子)이기 때문에 갖은 수모를 당하던 숙부. 해방이 되자 위세를 떨치던 집안이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는 공비가 되어 좌익 계열에 가담했고 숙부는 군대에 자원 입대했다.

어느 날 공비가 출현하여 마을들이 피해를 입고 면 주재소가 불났는데, 이것이 아버지의 소행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에 흥분한 주민들이 어머니를 학대했다. 마침 휴가를 받고 나온 숙부가 어머니를 구해 주었다. 그 후, 숙부는 상이 용사가 되어 제대했다. 그러나 미처 꺼내지 못한 가슴 속의 파편을 꺼내기 위해 군 종합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지만 실패한다. 이로 인해서 밝고 낙천적이던 숙부의 얼굴은 어두운 그늘로 뒤덮히게 된다.

회상에서 깨어나 K시에 도착한 나는 어느 식당에서 국밥을 먹은 후 상가(喪家)로 향했다.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썰렁한 상가가 나를 맞이하였고 숙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말을 숙모로부터 전해 듣는다.

경찰이 와 사체를 검시하고 염하는 과정에서, 숙부의 가슴에 난 흉터를 보고 나는 악몽 같은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쓴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화장을 했다. 화장이 끝난 후 숙부의 가슴에 깊숙히 박혀

있던 파편 조각을 손에 쥔 채 나는 심한 자괴(自愧)에 빠진다. 대합실에서 버스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다시 나는 옛일을 회상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해 지난 후, 불쑥 찾아온 숙부는 어머니의 묘소에 가 오열하면서 아버지의 기일(忌日)을 가르쳐 주었다. 결국 이 과정을 통해 나는 아버지의 죽음을 알게 되었고 또 그것이 숙부의 가슴에 남은 상처와 관련이 있음을 알았다. 그 후 숙부는 강도 상해, 살인 미수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전과 3범이 되었지만, 새 삶을 살려고 노력해 왔었다.

□ 해설

1982년에 발표된 이동하의 단편 소설 '파편(破片)'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이 이룩해 낸 분단 문학 중에서 수작(秀作)으로 평가받고 있는 작품이다.

이 소설은 숙부의 사망을 알리는 한 장의 전보로부터 시작된다. 그 전보에는 간명하게 숙부의 죽음을 알려 주고 있다. '나'는 그 전보를 받고 오랫동안 양치질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나'의 행동은 숙부와 관계되어 있는 과거의 끈질긴 기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나'의 의식적인 행위와 연관이 된다. '나'가 벗어나고자 하는 끔찍한 기억은 바로 광복 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일들과 관계되어 있다. 친일파였던 조부는 광복이 되자 몰락의 길을 걷게 되고, 더욱이 아버지의 좌익 활동으로 인해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고 만다. 그 풍비박산의 과정 속에서 어머니는 씻을 수 없는 수모를 당하게 된다. 이러한 잊고 싶은 과거의 기억은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못할 정도로 아직까지 '나'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나'는 비록 몰락의 과정에서 집을 구원한 사람이 숙부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숙부에게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는데, 그것은 과거와 관련된 모든 기억을 잊고자 하는 나의 의식적인 태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과거에 대한 끔찍한 기억을 간직한 '나'가 과거와 결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같은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의 죽음을 목도하는 일이기에, 숙부의 죽음을 확인하려 가는 길은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확인하려 가는 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작품의 묘미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나'가 숙부의 죽음을 확인하는 작업은 역설적이게도 그의 상처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숙부를 폐쇄적으로 만들었던 것은 그가 전쟁 때 입은 외상 때문이지만, 그것은 표피적인 것에 불과하다. 숙부는 그 외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마음의 상처를 전쟁터에서 입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장면은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숙부'가 아버지의 기일을 '나'에게 알려 주는 것으로 암시된다. 이 과정 속에서 나는 숙부가 간직했던 '흉곽' 안의 '파편'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삼촌이 지금까지 꺼안고 산 이물질인 동시에 여전히 남아 있는 분단의 상처를 암시한다. 삼촌은 그 분단의 상처를 온몸으로 감싸면서 그것을 극복하려 했지만, '나'는 그것의 기억을 끊임없이 은폐하려 한 것이다. 이런 '나'가 숙부의 몸에서 나온 파편을 보고 자괴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엄연히 살아 있는 분단의 현실에 눈을 가리고 있었던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 '파편 조각'의 상징적 의미

삼촌의 가슴에 남아 있던 파편 조각은 삼촌의 삶을 고려했다면 전쟁이 남긴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의미하는 것인 동시에, 아버지를 죽게 한 것에 대한 자책감으로 전쟁의 와중에 잃어버린 인간성을 되찾고자 하는 삼촌의 의지라고 볼 수 있다.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삼촌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향하면서 과거 삼촌에 얽힌 기억을 떠올리며 애써 잊으려 한다. ‘나’의 조부는 몰락한 친일 거부였고, ‘나’의 아버지는 6.25 전쟁 중 공산주의자가 되어 행방이 묘연해졌으며, 서출(庶出)이나 친성이 밝고 착했던 삼촌은 국방군이 되어 가슴에 부상을 입고 제대한다.

마침내 삼촌이 나타났다. 두 팔로 가슴을 잔뜩 싸안은 그는 묵묵히 병원 문을 나섰다. 나는 잠자코 뒤를 따랐다. 허리를 꾸부정하게 구부린 채 그는 걸음마를 하듯 조심조심 걸었다. 한 발자국을 내딛는 데에도 무진 힘들어 보였다. 하지만 그런 상태로 우리는 텅텅거리는 시외버스를 타야만 했다. 수술만큼이나 길고 조마조마한 귀로였다. 어쩌면 삼촌은 가슴팍을 찢개고 작은 **파편 조각**을 뽑아낸 대신 의사들로 하여금 보다 크고 위험한 폭탄 같은 것을 거기가 숨겨 두게 한 건 아닐까 하고 나는 생각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수술은 실패였다. 무려 다섯 시간에 걸친 집도에도 불구하고 끝내 파편 조각을 찾아내지 못했던 것이다. 삼촌은 간신히 골방으로 돌아와 드러눕고 나서야 내 어머니께 씩어 뱉듯 말했다. “백죄 몸뚱이만 생으로 난도질해 놔다 아입니까. 두 번 다시 할 짓 못됩니다. 고무다리에 외팔 인생도 뼈바린 판국에 그까짓 쇳소리 하나 들었으나 어덜고 안 들었으나 어덜것임니까. 어차피 죽오마 썩어질 몸뚱이…… 내사 마, 이대로 좋심더. 의사들은 다시 해보자 캅니다만 나는 싫다 아입니까. 거죽만 멀쩡하지 난들 성한 사람입니까? 불구 인생이기는 피장파장인가야…….”

삼촌은 두 번 다시 수술을 받지 않았다. 곶은 날이면 몸의 어딘가가 아프다고 일쭉 공공 앉으면서도 병원은 찾지 않았다. 밝고 낙천적이던 원래의 성품은 거의 찾아볼 길이 없었다. 수술 자리가 아문 뒤에도 그는 여전히 골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는데, 내게 자주 들려주던 그 전쟁 이야기도 더는 꺼내지 않았다.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얼굴을 뒤덮은 그늘도 갈수록 더 짙어지지만 하는 그를 두고 내 어머니는 그것이 모두 삼촌의 가슴팍에 박혀 있는 쇳독(毒) 때문이라며 얼마나 자주 한숨짓곤 했던가…….

(중략)

“자네 아버님 제살랑 5월 중 적당한 날을 택해 모시도록 하소. 가끔적이면 중순 이진이 좋겠네.” 돌아오는 차 중에서 그는 불쑥 말했다. 나는 멍하니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때까지도 나는 아버지의 제사를 모시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 어머니의 줄기찬 희망 때문이었다. 6.25 한 해 전에 영명 행방을 감추어 버린 아버지가 세상 어딘가에 아직도 살아 계시리란 희망을 내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해마다 주인 없는 생일상반을 차려왔던 일을 생각하고 나는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어둠이 깊게 깔리기 시작한 창 밖 거리만을 내다볼 뿐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버스에서 내리는 길로 그는 곧장 서울역으로 가 버렸다. 내 집으로 모시마고 나는 물론 말했지만 그는 단지 이렇게 대꾸했을

따름이었다. “도리가 아닌 줄은 알지마는 어쩌겠노. 나야 워낙 그런 사람 아닌가? **빈 껍데기**만 남아서 너마마로 굴러당긴다 뿐이지, 진짜 모습은 진작에 끝난 거네. 인제사 생각하며, 기왕 한 구덩이에 묻히지 못한 것만 원통할 따름이제……, 자네 집사람한테는 날 만났단 얘기도 하지 마소.”

나는 더 이상 그를 잡지 않았고, 그러다고 돌아설 사람도 아니었다. 그날 밤 내내 잠을 설치면서 나는 그가 남긴 말을 곰곰 되씹었다. 적어도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다. 그는, 삼촌은 내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했던 것이다. …어쩌면 그의 가슴에 남아있는 상흔과도 관계가 있는 건지 모른다고까지 나는 생각했다. 비로소 나는 그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제대를 하고 돌아온 삼촌의 모습, 눅눅한 골방에 드러누워 누에처럼 보내던 생활, 재수술을 거부하며 그가 내뱉었던 말들, 곶은 날이면 육신의 어딘가가 아프다면서 오밤중에도 곤잘 공공 앉던 일, 그리고 또 갈수록 **말수가 줄어든** 대신 뿌리가 점점 더 깊이 느껴지던 기침 소리 등등…… 그랬다. 옛날과는 생판 모습이 달라져 버린 그 삼촌에게서 나는 문득문득 어딘가로 종적을 감추어 버린 내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곤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는 해도 그의 **기이한** 행적들을 죄다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었다. 귀가 한 해가 가까워 오던 이듬해 초여름에 삼촌은 최초의 범법행위를 저질렀었다. 구닥다리 **엠원 소총**을 몰래 꺼내 들고 사냥을 나갔던 그는 멧돼지 대신에 사람을 쏘았던 것이다. 공판정에 서 있던 삼촌의 모습을 나는 잘 기억해 낼 수 있었다. 표적물을 착각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단호히 대답했다.

“천만에, 사람인지 짐승인지쯤은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디.”  
“그렇다면 상대의 얼굴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는가?”  
“물론입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디.”  
“낯선 사람을 쏜 이유가 무엇인가?”  
“…….”

“그럼 다시 묻겠는데 자기방어가 목적이었는가 아니면, 살해가 목적이었는가?”  
“처음엔 산짐승이 움직이고 있거니 생각했습디.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표적이 불쑥 노출됐습디. 가능성 위에 떠오른 것은 분명 사람의 얼굴이었습디. 그것도 낯선… 갑자기 **살의(殺意)의 충동**이 나를 사로잡았고 그러자 상대가 쓰러졌습디.”  
“최초의 일발을 발사한 후 상대가 쓰러진 뒤에도 다시 두 발을 더 발사한 이유는?”  
“상대가 픽 쓰러지는 것을 보았을 뿐 나 자신은 방아쇠를 당긴 기억도 또 총성을 들은 기억도 없었기 때문입니더.”  
일테면 그것이 삼촌의 기이한 생애의 시작이었던 셈인데, 그 이후의 거듭된 행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나로서는 이해할 길이 없었던 것이다. 그는 불법 무기 소지와 살인미수로 6년형을 살았었다. 출감 후 내 어머니는 서둘러 그를 장가들었지만 결혼 두 해 뒤에 그는 다시 재범을 했고, 재출감 1년도 못 되어 삼범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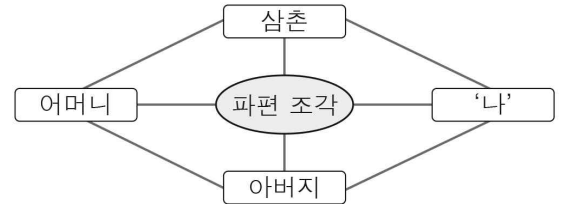
- 이동하, 「파편」-

38.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장면을 빈번하게 전환하여 사건의 긴박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세밀한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대화를 통해 인물 간 갈등 양상이 심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④ 시간을 역전적으로 구성하여 인물의 과거 행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중심 사건을 여러 인물들의 시각으로 서술하여 사건을 총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39. <보기>는 **파편 조각**을 중심으로 인물들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① 어머니는 삼촌의 갑작스런 성격 변화가 파편 조각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했다.
- ② 어머니는 파편 조각을 통해 행방이 묘연해진 아버지의 비극적인 삶을 떠올린다.
- ③ 삼촌은 어머니에게 파편 조각을 제거하는 수술을 재차 받지 않으려는 의사를 밝힌다.
- ④ ‘나’는 파편 조각이 삼촌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상처와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⑤ ‘나’는 파편 조각과 삼촌의 말을 연결하여 아버지 죽음의 경황을 삼촌이 알고 있으리라 추정한다.

4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읽고 짧은 서평 쓰기 활동을 해 보았다.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이 작품은 작가가 겪은 유년기의 전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전후 소설로, 이념적 갈등보다는 전쟁의 폭력적 상황 속에서 인간이 겪는 고통에 주목하고 있다. 즉, 전쟁이 초래한 비인간화, 인간성 황폐화, 개인에게 남긴 상처, 사회 부적응과 인간 소외, 가치관 혼란의 문제와 이에 대한 극복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서평 쓰기**

- ㉠ 삼촌이 자신을 ‘빈 껍데기’로 표현한 것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
- ㉡ 삼촌의 ‘말수가 줄어든’ 것은 외부 세계와 소통하지 못한 채 점차 위축되어가는 상처 입은 삶의 모습으로 진단할 수 있다. …………… ㉡
- ㉢ 삼촌의 ‘기이한 행적’은 전쟁으로 인해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개인적 의지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 ㉢
- ㉣ 삼촌이 ‘엠원 소총’을 소지한 것은 전쟁의 상흔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의 정체된 내면세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
- ㉤ 삼촌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살의의 충동’은 폭력적 상황에 내몰린 평범한 인간이 겪은 정신적 고통의 산물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현대소설]

[38~40] &lt;출전&gt; 이동하, 「파편」

## 38.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이 작품은 작품 속 인물인 '나'가 서술자가 되어 '나'가 어렸을 때의 삼촌 모습과 '나'가 성인이 된 후 만난 삼촌의 일을 회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시간을 역전적으로 구성하여 삼촌의 과거 행적을 서술하고 있다.

- ① 이 작품은 '나'가 삼촌의 과거 행적을 회상의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건 장면을 빈번하게 전환하여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② 인물의 외양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다. ③ 공관정에서의 대화 장면은 삼촌과 상대와의 갈등 양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삼촌의 내면세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삼촌의 행적을 '나'의 시각으로 서술하고 있다.

## 39. [출제의도] 소재를 중심으로 인물들의 관계 이해하기

어머니가 아버지의 삶과 관련지어 생각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① 어머니는 삼촌의 말수가 줄어들고 얼굴에 그늘이 짙어지는 것을 파편 조각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③ 삼촌은 파편 조각 제거 수술이 실패한 다음, 두 번 다시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④ 삼촌은 제대한 후 골방에서 틀어박혀 지내며 파편 조각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 동시에 성격도 폐쇄적으로 변하는데, '나'는 이러한 삼촌의 모습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를 통해 '나'는 파편 조각이 삼촌에게 육체적 상처를 넘어서 내면에 상처를 입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아버지 제삿날을 알고 있다는 삼촌의 말을 통해 '나'는 삼촌이 아버지의 죽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삼촌의 상흔, 즉 파편 조각과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삼촌의 말과 파편 조각을 결합하여 삼촌이 아버지 죽음의 정황을 알고 있으리라고 추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40. [출제의도]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보기>에서는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인간이 받은 고통의 양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삼촌의 '기이한 행적'은 무의식 속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것으로, 이는 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된 내면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삼촌의 '기이한 행적'을 전쟁으로 인해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의지의 실현으로 보기 어렵다.

- ① '빈 껍데기'는 삼촌이 전쟁의 상처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 자신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삼촌이 말수가 줄어든 것은 성격이 점점 폐쇄적으로 변한 것으로, 전쟁의 상처로 인해 외부 세계와 소통하지 못하고 위축되어 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총은 전쟁의 무기로 삼촌이 '엠원 소총'을 지니고 있던 것은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면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⑤ 총구에 사람의 얼굴이 나타나자 무의식적으로 방아쇠를 당겼다는 것으로 보아, '살의의 총동'은 전쟁의 폭력적 상황에 내몰린 삼촌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산물이라 볼 수 있다.

두말없이 나는 앞장섰다. 서둘러 퇴근 시간 전에 돌아올 수 있겠다고 여렘했지만 물론 그렇게는 되지 않았다. 근교라고는 해도 우리가 묘소에 닿은 것은 해가 설핏한 때였다. 내 어머니의 봉분에는 잔디가 제법 깊고 넓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는 지석 앞에서 2층 돌이 소주 한 병과 치치포 몇 쪽을 호주머니에서 꺼내 놓았다. 그리고는 허리를 꺾고 무릎을 꿇은 채 오래도록 일어나지 않았다. 혼신의 힘을 다해 오열을 참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러나 끝내는 땅바닥에 얼굴을 박은 채 그는 신음 같은 울음소리를 냈다.

④ "자네 아버님 제살랑 오월 중 적당한 날을 택해 모시도록 하소. 가급적이면 중순 이전이 좋겠네."

돌아오는 차중에서 그는 불쑥 말했다. 나는 멍하니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때까지도 나는 아버지의 제사를 모시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내 어머니의 즐기던 희망 때문이었다. 6·25 한 해 전에 영영 행방을 감추어 버린 아버지가 세상 어딘가에 아직도 살아 계시리란 희망을 내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해마다 주인 없는 생일상만을 차려 왔던 일을 생각하고 나는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어둠이 열리게 깔리기 시작한 장막 거리만을 내다볼 뿐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버스에서 내리는 길로 그는 곧장 서울역으로 가 버렸다. 내 집으로 모시마고 나는 물론 말했지만 그는 단지 이렇게 대꾸했을 따름이었다.

⑥ "도리가 아닌 줄은 알지마는 어쩌겠노. 나야 워낙 그런 사람 아닌가? 빈 껌데기만 남아서 넘어마로 굴러들긴다 뿐이지, 진짜 모습은 진작에 끝난 거네. 인제사 생각하마, 기왕 한 구덩이 묻히지 못한 것만 원통할 따름이지……. 자네 짐사람한테는 날 만났단 얘기도 하지 마소."

나는 더 이상 그를 잡지 않았고, 그러다고 돌아설 사람도 아니었다. 그날 밤 내내 잠을 설치면서 나는 그가 남긴 말을 곰곰 되씹었다. 적어도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다. ㉠ 그는, 삼촌은 내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했던 것이다……. 어쩌면 그의 가슴에 남아 있는 상흔과도 관계가 있는 건지 모르나고까지 나는 생각했다. 비로소 나는 그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제대를 하고 돌아온 삼촌의 모습, 녹록한 골방에 드러누워 누에처럼 보내던 생활, 재수술을 거부하며 그가 내뱉었던 말들, 굶은 날이면 육신의 어딘가가 아프다면서 오밤중에도 곤잘 공공 앞던 일, 그리고 또 갈수록 말수가 줄어든 대신 뿌리가 점점 더 깊이 느껴지던 기침 소리 등등…… 그랬다. 옛날과는 생판 모습이 달라져 버린 그 삼촌에게서 나는 문득문득 어딘가로 종적을 감추어 버린 내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곤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는 해도 그의 기이한 행적들을 죄다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었다. 귀가한 해가 가까워 오던 이듬해 초여름에 삼촌은 최초의 범법 행위를 저질렀었다. ㉡ 구덕다리 엠원 소총을 몰래 꺼내 들고 사냥을 나갔던 그는 멧돼지 대신에 사람을 쏘았던 것이다. 공판정에 서 있던 삼촌의 모습을 나는 잘 기억해 낼 수 있었다. 표적물을 착각한 것은 아니라는 질문에 대해 그는 단호히 대답했었다.

"천만에, 사람인지 짐승인지쯤은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디."

"그렇다면 상대의 얼굴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는가?"

"물론입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디."

"낯선 사람이 쓴 이유가 무엇인가?"

"……"

"그럼 다시 묻겠는데 자기 방어가 목적이었는가, 아니면 살해가 목적이었는가?"

"처음엔 신짐승이 움직이고 있거나 생각했습디.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표적이 불쑥 노출됐습디. 가능최위에 떠오른 것은 분명 사람의 얼굴이었습디. 그것도 낯선…… 갑자기 살의(殺意)의 충동이 나를 사로잡았고 그러자 상대가 쓰러졌습디."

"최초의 일 발을 발사한 후 상대가 쓰러진 뒤에도 다시 두 발을 더 발사한 이유는?"

"상대가 퍽 쓰러지는 것을 보았을 뿐 나 자신은 방어쇠를 당긴 기억도 또 총성을 들은 기억도 없었기 때문입니디."

일테면 그것이 삼촌의 기이한 생애의 시작이었던 셈인데, 그 이후의 거듭된 행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나로서 이해할 길이 없었던 것이다. 그는 불법 무기 소지와 살인 미수로 6년형을 살았었다. 출감 후 내 어머니는 서둘러 그를 장가 들었지만 결혼 두 해 뒤에 그는 다시 재범을 했고, 재출감 1년도 못 되어 삼범을 기록했다. 두 번째는 강도 미수, 세 번째는 강도 상해였다. 전과가 거듭될수록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동기가 단순해져 갔고 그에 비례하여 죄질도 저열해졌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의 기이한 행적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까닭은 그가 결코 경제적인 동기에서 범법을 거듭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몰락한 가계라고는 해도 그에게는 상속받은 유산이 있었을 뿐더러 그나마 경영하는 일에도 그는 도무지 뜻이 없어 했던 것이다.

사자는 이제 말이 없다. 아무도 예기치 않았던 순간에 그는 갑작스럽게 자신의 생애를 마감해 버린 것이다. 생애의 태반이 그러하듯 그 죽음까지도 우리가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남겨 둔 채 그는 영영 함구해 버린 것이다. 또 한번 관 뚜껑을 열어젖힌다고 한들 우리가 어떻게 그의 죽음, 그의 생애를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 그렇다면 그의 침묵을 보다 영원한 것으로 만들어 놓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생각했고, 따라서 이 자그마한 장례가 빨리 끝나 주기만을 열렬히 소망했다.

고인을 다시 대한 것은 일몰이 가까운 시각이었다. 유탈을 받아 안았을 때 상주인 종수가 보인 반응은 무수 말로도 표현할 재간이 없다. 그의 표정은 차라리 백치의 그것에 가까웠다고나 해야 할 그런 것이었다.

하지만 보다 더 나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한지에 쌓인 한 줌의 재도, 그것을 받아든 종수의 표정도 아니었다. 나를 사로잡은 것은 아주 작고 단단한 파편 한 조각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쇠골(碎骨) 과정에서 발견했다면서 작업장 인부가 그것을 내 손바닥 위에 장난스럽게 올려놓았을 때 나는 흡사 쇠공이 같은 것으로 정문(頂門)\*을 강타당한 듯한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그것은 의심할 나위 없이 고인의 오른쪽 가슴 어딘가에 깊숙이 박혀 있던 바로 그 ㉣ 파편 조각이었다. 외과 수술로도 적출해 낼 수 없었던 그 작고 단단한 쇠조각은 암처럼 체내에 뿌리를 내린 채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인의 생명을 지배해 왔음이 분명하다고 나는 생각했다. 어둠이 서서히 묻어 오는 하늘에 눈발은 여전히 얽게 날리고 있었다. ㉤ 매운 바람 속을 묵묵히 걸어 내려오면서 나는 문득 심한 자괴(自愧)를 의식했다.

- 이동하, '파편'

.정문(頂門) : 정수리.

05 위 글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은?

- ① 삼촌은 그의 가족으로부터 방대를 받으며 지내왔다.
- ② 어머니와 달리 '나'는 아버지의 생활을 믿고 있었다.
- ③ 삼촌이 범법 행위를 한 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
- ④ '나'와 종수는 오랫동안 삼촌의 행적을 조사하고 다녔다.
- ⑤ 제대 후 삼촌의 피폐한 생활은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

06~07 (보기)는 위 작품의 앞부분의 줄거리이다. 이를 바탕으로 6번과 7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나'는 어느 겨울 저녁에 삼촌이 사망했다는 전보를 받는다. 삼촌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같이 가겠다는 아내를 떼어놓고 눈이 날리는 거리를 지나 밤차로 K시로 향한다. 차 안에서 양주를 마시며 '나는 회상에 잠긴다.

해방이 되자, 친일파였던 할아버지 덕분에 위세를 떨치던 집안이 몰락한다. 아버지는 공비가 되어 좌익 계열에 가담했고, 삼촌은 군대에 자원 입대했다. 공비들이 마을을 습격한 일을 아버지가 한 일로 믿는 마을 사람들이 어머니를 폭행했고, 이런 위기에서 어머니를 구해 준 것은 휴가를 나온 삼촌이었다. '나'는 이런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매우 싫다.

삼촌이 제대했다. 하지만 가슴에 파편이 박혀 상이용사가 된 상태였다. 미처 꺼내지 못한 가슴 속의 파편을 꺼내기 위해 수술을 하지만 실패하고, 삼촌은 점차 우울한 성격으로 변해 가며 여러 차례 범죄 행위를 저지른다. 형무소에서 출소한 삼촌과 함께 돌아가신 어머니의 묘소를 찾는다.

06 위 글과 (보기)를 함께 읽었을 때, 삼촌에게 있어 ㉠이 지닌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끄러움을 확인시켜 주는 각성의 매개체
- ② 전쟁으로 인한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상처
- ③ 한 가족을 불행으로 몰아넣었다는 죄의식
- ④ 경제적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한 무능함
- ⑤ 불합리한 사회 구조와 기득권에 대한 대결 의지

07 위 글과 (보기)를 참고했을 때, ㉡에서 '나'가 자괴감을 느낀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머니의 비극적인 삶을 외면했기 때문에
- ② 삼촌의 범죄 행위를 만류하지 못했기 때문에
- ③ 폐쇄된 삶을 살아왔던 삼촌에 대한 미움 때문에
- ④ '나'를 위해 희생했던 삼촌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 ⑤ 삼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자신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0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삼촌이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 ② ㉣ : '나'의 가족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삼촌의 아쉬움이 드러나 있다.
- ③ ㉤ : 삼촌의 가슴에 있는 상처와 아버지와의 관련성에 대한 '나'의 판단이 드러나 있다.
- ④ ㉣ : 제대 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삼촌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 ⑤ ㉤ :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유일한 존재의 장례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나'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

## 출전 이동하, '파편'

주제 전쟁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인간의 고뇌

해제 1982년에 발표한 단편 소설로, 전쟁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한 인간의 슬픈 삶을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은 삼촌의 사망을 알리는 한 장의 전보로 시작된다. '나'는 전보를 받고 장례식에 가면서 아버지와 삼촌에 대한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되도록 빨리 잊으려고 한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삼촌의 이름을 확인하고 자괴감을 느낀다.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과 현재와 과거의 교차 구성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아픔을 실감나게 그리고 있다.

줄거리 어느 겨울 저녁, '나'는 전보를 받는다. 삼촌이 사망했다는 전보였다. '나'는 어리둥절하고 혼란스러웠다. 삼촌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회사에 휴가를 신청한 뒤 K시로 향한다. 버스 안에서 양주를 마시며 '나'는 회상에 잠긴다. 친일파였던 할아버지,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였던 아버지, 그리고 서자(庶子)이기 때문에 갖은 수모를 당했던 삼촌. 해방이 되자 위세를 떨치던 집안이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는 공비가 되어 좌익 계열에 가담했고 삼촌은 군대에 자원 입대했다. 어느 날 공비가 출현하여 마을들이 피해를 입고 면 주재소가 불탔는데, 이것이 아버지의 소행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에 흥분한 주민들이 어머니를 학대했다. 마침 휴가를 받고 나온 삼촌이 어머니를 구해 주었다. 그 후 삼촌은 상이용사가 되어 제대했다. 그러나 미처 꺼내지 못한 가슴 속의 파편을 꺼내기 위해 군 종합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지만 실패한다. 이로 인해서 밝고 낙천적이던 삼촌의 얼굴은 어두운 그늘로 뒤덮이게 된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해 지난 후, 불쑥 찾아온 삼촌은 어머니의 묘소에 가 오열하면서 아버지의 기일(忌日)을 가르쳐 주었다. 결국 이 과정을 통해 '나'는 아버지의 죽음을 알게 되었고 또 그것이 삼촌의 가슴에 남은 상처와 관련이 있음을 알았다. 그 후 삼촌은 강도 상해, 살인 미수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전과 3범이 되었지만, 새 삶을 살려고 노력해 왔었다. 회상에서 깨어나 K시에 도착한 '나'는 경찰이 와 사체를 검시하고 염하는 과정에서, 삼촌의 가슴에 난 흉터를 보고 악몽 같은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쓴다. 그리고 고인의 유언에 따라 화장을 했다. 화장이 끝난 후 삼촌의 가슴에 깊숙이 박혀 있던 파편 조각을 손에 쥔 채 '나'는 심한 자괴(自愧)에 빠진다.

05 ⑤ 06 ② 07 ⑤ 08 ②

## 05 미루어 알기 답. ⑤

제대 후 삼촌은 녹녹한 골방에 드러누워 누에처럼 생활을 한다. 말수가 줄어들고 기침 소리는 심해지는 등 점점 피폐한 생활을 이어 가게 되는데, 이러한 삼촌의 생활은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 '나야 워낙 그런 사람 아닌가? 빈 껌테기만 남아서 엉망으로 굴러떨어진다 뿐이지, 진짜 모습은 진작에 끝난 거네. 인제사 생각하마, 기왕 한 구덩이 묻히지 못한 것만 원통할 따름이제…….'라는 부분에서 삼촌의 피폐한 생활이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삼촌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피폐한 생활을 이어 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삼촌이 그의 가족으로부터 냉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② 어머니는 아버지의 생활을 믿고 있었다.

③ 삼촌이 범법 행위를 한 것은 경제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로 죄책감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것이다.

④ '나'와 종수가 오랫동안 삼촌의 행적을 조사하고 다녔는지의 여부는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 06 소재의 의미 파악 답. ②

이 글과 <보기>를 통해 ㉠은 표면적으로는 전쟁 중에 삼촌의 가슴에 박힌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삼촌은 전쟁 중에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죄책감으로 그 파편을 지닌 채 20여 년을 고통 속에 살아온 것이다. 이로 보아 삼촌의 가슴에 있는 파편은 전쟁으로 인한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상처임을 알 수 있다.

## 07 내용의 추리 답. ⑤

지문과 <보기>의 글을 종합해 보면 삼촌은 '상처'를 간직한 채 고통을 스스로 감당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나'는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벗어날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러기에 삼촌의 '파편'을 보면서 삼촌의 삶을 떠올리며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다. 삼촌의 삶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 08 세부 내용의 이해 답. ②

㉢는 '나'의 가족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삼촌의 아쉬움이 드러난 것이 아니다. 이는 삼촌이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항상 '나'의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는 부분이다.